

악플러들에 씀함!

선행해도 욕먹는 한국사회가 부끄럽다

네티즌·공동모금회 “문근영 기부 빨치산 심리전 운운하는 세대 개탄”



한국사회가 부끄럽다. 악플(악성댓글)로 달린 트 최진실을 자살로 몰아갔던 한국사회 일각의 야만성이 이번에는 ‘기부천사’로 불리우는 ‘국민 여동생’ 문근영(사진)을 공지로 몰고 있다. ‘일조보수’를 자처하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문근영을 ‘기부천사’로 띄우는 것은 빨치산의 심리전”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동조하면서 한국사회 일각의 비상식·반이성적 작태에 대한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2일 청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8억5천만 원을 기부한 익명의 인물을 개인 최고 기부자로 발표했다. 익명이었지만 언론을 통해 익명의 기부자가 ‘문근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문근영의 선행에 찬사를 보냈고, 언론도 ‘기부천사’라고 묘사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와 보수단체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문근영이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기부 자체를 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은 ‘수구꼴통’과 ‘호남혐오주의자들’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됐다. 이들 주장의 두 축은 문근영의 고향이 ‘광주’라는 원초적 지역감정과 문근영의 외조부인 고류낙진씨가 한국전쟁 직후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죄인이라는 데 맞춰졌다. 인터넷에서 이들의 의견은 극소수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극악무도하다. “광주 좌빨 문근영이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낸다” “그들(좌파)은 정

말 그런 식으로 어린 영혼도 이용한다” “문근영 외조부의 행적을 보니 죽는 날까지 이념을 버리지 못했다. 어찌 악질 외조부의 업보가 없겠는가”는 등이다. 물론 대다수 네티즌은 문근영의 선행을 옹호하고 이런 논란에 대해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luckyyou’라는 네티즌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라도 혐오증이다. 이 정신병을 고치지 않으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어이 상심’이라는 네티즌은 “기부하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다.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고 개재했다. 금기야 지만원씨는 14일 홈페이지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라는 글을 통해

“좌의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열안이 돼있다”는 내용의 어이없는 글을 올렸다. 그의 억지는 “문근영이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해 빨치산은 빨 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이라는 극언으로 연결됐다. 윤장현 한국YMCA 이사장은 “문근영 기부의 핵심은 ‘나눔’인데 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며 “어이없는 주장에는 반론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사회복지모금회 정금철 부장은 “기부행위를 가족사에 연결시키고 지역적 편견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참피하다”며 “이 때문에 숨어서 남을 도우려는 사람마저도 기부를 꺼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지었다. 2008년 11월,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기에 한국사회는 너무 슬프고 힘든 사회가 됐다. /연한주기자 ahj@kwangju.co.kr



불법 게임기 압수→환경자원공사 공매→비밀공장서 재가공→게임장 재유통

‘돌고 도는’ 게임기…뿌리 못뽑는 사행

불법 게임기 제조 공장 담양 단속 현장 가보니



전남경찰이 17일 담양군 창평면 비밀 게임기 제조공장에서 LCD모니터와 하드디스크 등 불법 게임기 부품들을 압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7일 오전 10시30분 담양군 창평면 한 시골 마을.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100여m를 올라가자 600여m² 규모의 조립식 폐널건물 2동이 나란히 서있었다. 건물 주변엔 잡풀이 무성해 마치 흉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건물 안은 밖에서 본 모습과 전혀 달랐다. 건물 안에는 ‘바다 이야기’와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만드는 각종 부품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이 건물은 불법게임기 부품을 공매받아 다시 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게임기 제조 일당의 ‘비밀공장’이었다. 경찰이 이날 압수한 게임기 부품은 LCD 모니터 765대와 컴퓨터 본체 553대, 하드디스크 70개, 현금인식기 109개, 상품권 배출기 182개 등이다. 시가로만 약 3천만원 상당이며, 게임기 100여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를 알선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박씨 등이 이 ‘비밀공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게임기는 확인된 것만 90여대. 시가 9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사행성 게임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공매를 통해 받은 사행성

게임기와 폐업한 게임장에서 구입한 기계를 분리한 뒤 부품별로 10만~60만원을 받고 제조업체와 게임장에 팔아넘겼다. 또 게임업 주주와 부품 판매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이곳 공장에서 직접 부품을 조립해 게임기를 만든 뒤 전국의 게임장에 대당 100만씩을 받고 판매해 왔다. 압수된 게임기 부품이 게임기 제조업자에 되

팔리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한 게임기를 또 다시 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처리하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결국, 게임기 부품이 불법 제조업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제도적 맹점이 화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안재환 동영상’ 있나 없나

“타살 증거있다” 돈 요구 해남 출신 40대 검거

탈린트 고 안재환씨의 타살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40대 남자가 광주에서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안재환 동영상’을 빌미삼아 금품을 요구한 김모(41·해남군)씨를 지난 15일 광주에서 검거해 수배관서인 해남경찰에 이첩했다. 김씨는 관광호텔 임원을 사칭, “호텔에 활어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씨 등 9명으로부터 6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상습 사기 혐의로 해남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었다. 김씨가 광주에서 검거된 것은 안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이 전화추적을 통해 발신지가 광주임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씨가 실제 ‘안재환 동영상’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 현재

로서는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그(안재환씨) 타살 증거) 부분만 생각하면 나도 답답하다”는 말 외에 일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김씨는 지난달 16일 안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씨가 죽기 직전 모습을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 7장,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줄 테니 1천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김씨는 계좌이체로 1천만원, 안씨의 누나를 직접 만나 5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뒤 “터미널 사물함에 증거물이 들어 있다”면서 사물함 열쇠를 건넸으나 사물함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경찰은 기존 사기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2~3일후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안씨 관련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

불교계 수용 양금 해소

불교계가 17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으로 찾아온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과를 “여러 가지 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받아들여 “중고령환 난

란’의 한 부분이 됐던 경찰과 불교계 간 감정적 양금이 해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은 이날 어청장이 “부적절한 행위로 2천만 불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하자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직책을 잘 수행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살려달라” 장난말에 납치 오인

○초등학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오인 신고로 판명돼 한바탕 해프닝. ○S(35)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 H병원 앞에서 운전중 하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코란도 승용차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 ○신고 받은 광주경찰청은 탐문수사를 통해 구조요청을 한 목초등학교 H(12)군을 찾아냈으나 정작 H군은 “축구 시합을 마치고 코치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중 장난으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연실색. ○광산경찰 관계자는 “악의는 없었지만 한 소년의 장난으로 경찰 6명이 하루를 꼬박 허비했다”며 한숨. /광명기자 kps@kwangju.co.kr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11월 18일 ~ 11월 25일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일반	10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우수	15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특수	20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일반	10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우수	15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특수	20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일반	10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우수	150,000
장학금지원사업 (장학금) - 특수	200,000